“상품이 도착했습니다”… 클릭 유도하는 신종범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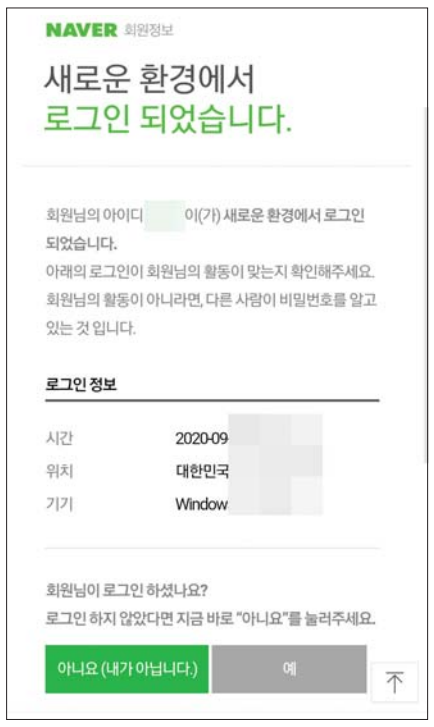
언택트 가속화 따른 주의 요구
친근한 메시지 등 진위 판별 어려움
금융앱 사칭 휴대폰 정보 탈취 등

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 금융·소비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이를 노린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친근한 포털 화면이나 메시지 내용 등을 이용해 접근하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유명 포털 회사의 고객센터에서 보낸 것처럼 위장한 이메일 피싱 공격이 포착됐다.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ESRC)에 따르면 최근 탐지된 공격은 네이버의 보안 서비스 중 하나인 ‘새로운 기기 로그인 알림 기능’이 해제됐다는 이메일 공지를 사칭하고 있다.

메일 내용에는 새로운 기기 로그인 알림 기능이 해제돼 다시 설정이 필요하다는 안내와 함께 ‘새로운 기기 로그인 알림 설정 바로 가기’ 버튼을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창이 나타나며, 이 때 사용자가 스스로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정보가 고스란히 해커에게 넘어가는 전형적인 피싱 공격이다.



실제 네이버 고객센터에서 온 알림 화면. /구서윤 기자

특히 이번 공격에 사용된 메일 화면은 실제 네이버가 사용하는 고객센터 공지 이메일과 디자인이 유사해 메일 수신자가 피싱 공격임을 인지하기 어렵다. ‘휴면 알림 메일 공지’, ‘이메일 계정에 오래된 쿠키 정보가 있다’ 등 다양한 수법이 번갈아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디자인과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SRC는 이번 공격의 배후로 특정 정부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인 ‘탈륨’을 지목했다. 문종현 ESRC 센터장은 “탈륨은 최근 평일뿐 아니라 공휴일·야간에도 공격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발신자 이메일을 유심히 살펴보고 로그인을 유도하는 웹 사이트의 인터넷 URL 주소가 공식 사이트가 맞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피싱 이메일은 첨부파일을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유형, 첨부파일 내에 멀웨어(악성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는 유형, 링크 클릭 시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는 유형, 링크 클릭 시 멀웨어가 다운로드되는 유형, 거짓 내용으로 상대에게 송금을 유도하는 유형 등이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와 금융활동이 늘고 있는 가운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휴대폰 해킹 기법인 스미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미싱 메시지는 평소 자주 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상점에서 주문한 상품이 발송되었으니 클릭해 확인하세요’, ‘고객님의 상품이 도착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근처 전염병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건강검진 통지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등의 문구와 함께 링크를 담고 있다. 특정 택배회사와 금융사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쓰고 있어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업체일 경우 무심코 누르기 쉽다.

금융상담 전화까지 가로채는 악성 앱도 발견됐다. 금융앱을 사칭해 감염된 스마트폰 정보를 탈취하고 금융상담 전화를 가로채 공격자에게 재연결하는 방식이다.

안랩에 따르면 공격자는 실제 유명 금융사 웹사이트와 매우 유사하게 제작해둔 피싱 사이트로 사용자를 유도한다. 사용자가 해당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용하려면 본인인증 프로그램을 설치 해야한다’며 ‘카이시’ 악성 설치파일(.apk)을 사용자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하게 유도한다.

설치되는 과정에서는 통화기능과 주소록, 문자메시지 접근권한 등 과도한 권한을 요구한다. 또 최초 실행 시에는 ‘기본 전화 앱을 OOO(해당 악성 앱이 위장한 유명 은행앱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팝업을 띄운다. 평소 스마트폰으로 앱을 내려받을 경우 거치는 일련의 과정으로 느끼기 쉽다.

이어 사용자가 모든 권한을 허용하면 카이시 악성 앱은 스마트폰 정보와 문자메시지, 주소록 등을 유출한다. 이와 함께 사용자의 전화 상태를 모니터링하다가 공격자가 지정해 놓은 특정 금융사 전화번호로 발신이 감지되면 이를 가로채 공격자의 번호로 재연결한다. 사용자가 올바른 번호로 금융상담 전화를 걸어도 해당 전화가 공격자에게 연결되는 것이다.

전화 연결 시에는 악성 앱 내부에 저장한 각 금융기관 별 안내음을 재생해 사용자의 의심을 피하기도 했다. 현재 안랩의 V3모바일 제품군은 해당 악성코드를 탐지하고 있다.

피싱 공격이 다양하고 교묘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 경우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본문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노력이 요구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강북 대표 학군’ 노원구 전세거래 ‘소멸’

임대차법·코로나 영향… 매물 실종
서울 전세시장, 노원 상승폭 가장 커
유명 학원 밀집한 중계동 매물 없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61주 연속 상승세가 지속된 가운데 가을 이사철 수요가 늘면서 강북 대표 학군으로 불리는 노원 지역 전세대란이 심화되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전세 매물 잠김 현상과 더불어 사전청약을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늘면서 전세난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13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전세시장은 ▲노원(0.29%) ▲관악(0.26%) ▲송파(0.26%) ▲강북(0.25%) ▲강동(0.21%) ▲양천(0.15%) 등이 올랐다.

가장 상승폭이 큰 노원은 동별로 1~2건 정도 전세물건이 있을 뿐 대부분 소멸됐다. 본격 이사철에 접어들기 전인 8월 거래가 체결된 경우가 많았다. 물건들을 살펴보면 상계동 두산아파트(전용면적 51.66㎡)는 지난 7일 2억2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이 아파트는 7월 2억원에 계약된 바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61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노원구 상계 주공단지 아파트 /정연우 기자

유명학원가들이 밀집한 중계동의 경우 전세물건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계동 삼익선경(전용면적 107.95㎡)은 한 달 새 2억원이 넘게 전셋값이 올랐다. 지난달 4억원에 계약이 체결된 이 아파트는 현재 6억5000만원에 전세물건이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노원은 도심 접근성이 좋고 중소형 면적이 많아 임대차수요가 꾸준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세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두 번째로 큰 상승폭을 기록한 관악구는 벽산블루밍(전용면적 101.95㎡)이 6억원에 물건이 나왔다. 이 아파트는 지난 7월 5억5000만원에 거래된 후 8월 4억5000만원을 기록하며 하락했지만 최근 1억5000만원이 올랐다. 두산(전용면적 84.87㎡)은 5억원에 계약된 지난달보다 1억원 가까이 오른 5억9000만원에 물건이 나왔다. 관악은 이 두건을 제외하고는 물건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정연우 기자 ywj964@

교촌에프앤비, 유가증권 상장예비심사 통과

이달 증권신고서 제출 예정

국내 대표 치킨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10일 상장위원회 심의에서 교촌에프앤비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

교촌에프앤비의 상장 도전은 유가증권시장 프랜차이즈 1호 직상장이라는 타이틀로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교촌은 2018년 3월 상장 추진을 발표하고, 3년 여간 철저하게 상장 준비를 진행했다. 특히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치킨 본업 내실 강화로 가맹점과 본사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확립했다.

교촌치킨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약 6억 1827만원(2018년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등록된 치킨 브랜드 중 가장 높다. 본사 또한 지난 해 연결기준 매출액이 약 3801억으로 2014년부터 이어온 업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또한 교촌은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우려되던 지배구조도 투명하게 개선했다. 비에이치앤바이오, 등 계열사들을 모두 교촌에프앤비 100% 자회사로 두어 대주주 및 제3자의 사익 편취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평가다. 교촌에프앤비는 상장예비심사 승인에 따라 9월 중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과기부, 2020 AIoT 위크 코리아 오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부터 18일까지 사물인터넷(IoT)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0 AIoT 위크 코리아’(AIoT진흥주간)를 개최한다.

AIoT 진흥주간은 사물인터넷(IoT)이 인공지능(AI)과 융합해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으로 진화함에 따라 사물인터넷과 AI, 5세대(5G) 이동통신 등이 융합된 초연결 지능화 사례들을 공유하는 자리로, ‘언택트 시대, AIoT로 커넥트하다!’를 주제로 지능형 사물인터넷 기술을 중심으로 표준·기술·보안·연구개발(R&D)·융합사례들을 공유하는 8개 행사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14일에서 18일까지 개최되는 ‘IoT 융합 제품 및 서비스 온라인 전시회’에서는 IoT중소기업의 수요처 발굴 지원을 위해 국제 물류 운송관리용 IoT 단말기와 지능형 궤도 로봇, 산소포화도 및 맥박 측정장치 등 과기정통부의 사물인터넷 검증확산 사업에 참여한 8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한다.

같은 기간 ‘온라인 IoT 쇼케이스’에서는 AI 인공지능 무인판매 솔루션, 빅데이터 기반 국제화물운송 중개 서비스, 3D 디지털트윈 통합관리 플랫폼 등 지능형 IoT 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 8개사에 대한 온라인 홍보관을 운영한다. 15일에서 16일까지 개최되는 ‘AIoT 컨퍼런스’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AIoT융합 대응전략 및 사례’를 주제로 카카오모빌리티, 한국IBM 등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업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디지털 뉴딜 사업에서 구현되는 AIoT 모습 등을 공유한다. /채윤정 AI전문 기자 echo@

국가기술자격 응시 재직자·중장년층 증가

학생 응시자 비율 감소세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 중 재직자와 중장년층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학생 응시자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이 같은 내용의 최근 5년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통계 보고서’ 분석 자료를 발표하고, 큐넷(Q-Net) 누리집에 14일 등재한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재직자(임금근로자)의 국가기술자격 비율이 지속 증가하는 반면 학생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인다.

특히 기사 등급에서 2019년도 기사 등급 국가기술자격 응시자 중 재직자 비율은 45.4%로 2015년 대비 3.3%포인트 증가했으나, 학생 비율은 30.9%로 같은 기간 5.1% 포인트 감소했다.

또 국가기술자격 응시목적과 관련해서는 이직(전직)과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해 응시한 비율이 증가했다.

국가기술자격 응시자 중 10대~30대 비율은 최근 5년 감소 추세인 반면, 40대~60대 이상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인생 이모작 준비 등을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도전하는 중장년층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가기술자격에 응시한 재직자 44만2161명 중 36만4093명은 취득하는 자격과 현재 업무가 관련성이 있다고 답해 높은 업무 관련성(82%)을 보였다. /한용수 기자 hys@